

첨단 내·외장자재 생산부문 1위 기업 정규수 (주)삼우이엠씨 회장

(주)삼우이엠씨는 창립 이래 반도체 클린룸용 특수 패널 생산을 시작으로 바이오 클린룸 내장재 및 초대형 병원 특수내장재, 초고층 대형 인텔리전트빌딩의 내장재와 첨단 커튼월 외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클린룸 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첨단 자재의 생산 메카이다. 또한 한국기술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기술사회 특별회원(기업)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신뢰와 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주)삼우이엠씨 정규수 회장과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 2007년 10월 22일 14:00
- 장 소 : (주)삼우이엠씨 회장실
- 참석자 : 정규수 회장, 한국기술사회 임창균 홍보위원, 김경수 과장

회사를 창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나 곧이어 찾아온 1차 석유 파동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의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 근무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차라리 회사를 차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1971년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경량 파티션(이른바 '벽 칸막이')을 개발했어요. 그러나 수요가 별로 없어 고전하다가 1975년 이후 삼성 본관과 대우센터 등이 들어서면서 납품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77년 삼우산업사를 창업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반도체 공장과 TFT-LCD, PDP 생산공장, 병원, 제약회사 등의 클린룸용 자재생산과 납품 그리고 대형인텔리전트빌딩 및 주요 건축물의 내장재와 초고층 빌딩의 첨단 외장인 커튼월 자재를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첨단 내외장재 생산을 위한 자동화제조시설을 확보하고 클린룸용 SGP(Steel Gypsum Partition)와 무정전 복합패널, 알루미늄 외장패널, 곡면특수천장패널 등을 개발,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커튼월 창호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은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열관리에 강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창과 창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도록 한 이중창으로 설계됐고 공기 유출입구를 설치해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여름철 내부로 들어오는 뜨거워진 열을 방출시킵니다. 또 공기층은 직사광선 투과율을

50% 이상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름철엔 실내 온도를 떨뜨리고 겨울철엔 더워진 공기를 내부로 끌어들이며 실내 환기까지 해줍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에 필요한 전력을 63% 절감할 수 있습니다.

CEO로서 경영철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으나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1981년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 동안 투명경영을 해 온 터라 채권단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호소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연찮게 신문에서 일본 마쓰시타전기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땀처럼 경영하라'는 글귀를 보고 '땀식 경영철학'을 터득했습니다. 땀에 물을 채워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듯 회사도 자금을 비축해 뒀다가 꼭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것이지요. 또한 '3불(不) 정책'이라 하여 기업가 정신이 미흡한 기업, 재무제표가 나쁜 기업,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1998년 외환위기로 매출이 급감할 때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파고를 무난히 넘을 수 있었으며, 당시 순이익도 12억 원이나 올렸습니다.

'현대판 문익점'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하던데요.

1981년 부도 이후 회사가 차차 정상화되면서 반도체 클린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술 선진국인 일본을 수시로 찾던 중 한 공장에서 특수 판넬을 보는 순간 "바로 저거야!"라는 직감을 얻고, 바닥에 떨어진 판넬 조각을 옷 속에 몰래 숨겨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판넬 조각은 오늘날 삼우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클린룸용 무정전 판넬 제작의 단초가 되었는데 이런 연유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 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회활동이 있으신지요?

사업 초기 새로운 선진 기술이나 선배의 존재가 무척 아쉬웠던 만큼 내가 배운 기술력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1995년 이천정보여자고등학교(현 다산고)를 설립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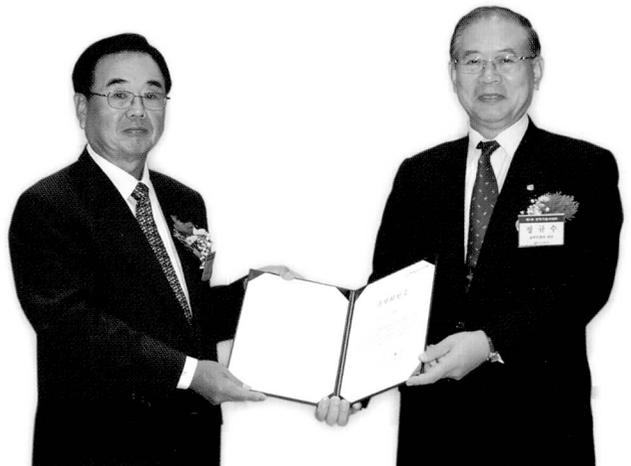


현재 (가칭)다산대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 배명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전경련 글로벌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한중경영인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커튼월 더블스킨 창호시스템을 국내 초고층 빌딩에 적용하는 한편 중국시장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독일 등 유럽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 경쟁업체보다 항상 2~3년 앞서가는 기술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매출을 매년 20%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기술사회 특별회원 확정